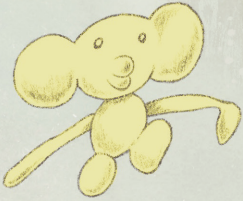



◆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우리들의 해방일지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우리들의 해방일지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 문집을 열면서, 04

◆◆ 도영

방탈출 카페 한켠의 추억 07
나조차 미워한 나에게 10
나의 섭식장애 13
어쩌면 즐거운 인생이니까 18
나의 x에게 21
너무 사랑하는 내동생 24

◆◆ 아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언니 29
언젠가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33
미혼모를 꼭 나쁜 시선으로 보지는 말아주세요 35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거든요 37

◆ 열림터 수업을 마치며. 글쓰기는 셀프구원 40



문집을 열면서,



드디어 10주간의 글쓰기 여정이 끝났습니다.

글쓰기 수업이 있는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그 전날부터 지속된 연속 근무와 장시간 회의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활인들과 함께 글쓰기 수업을 하고부터 어느샌가 수요일은 저에게 가장 기대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매주 20분씩 넘게 지각을 하는 이들이 이번 주는 늦지 않겠지 하고 기대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글을, 마음을, 기억을 듣는 일에 무척이나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8시에 모여 서로의 사적인 고통의 크기와 시간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읽으며 우리는 자주 울었고 그만큼 웃었습니다.

힘이 들 때면 ‘타고났다’, ‘이미 작가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던지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열림터 작가님들은 글쓰기를 통해 ‘폭풍 같은 인생’을 돌아보고

폭행과 학대의 상처, 과거의 실패와 마주하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그저 버티고 생존해온 자신이 대견하고 기특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삶과 스스로를 긍정하고 감사와 우정을 기록했습니다.

10주간 프로그램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준 열림터 작가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평소 오래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데

글쓰기는 마치 ‘요물’, ‘fox’ 같다며 쓸데없이 매력 있고 재미있다고 해준 아름,

예술적 표현들로 명문을 작성해 감동을 주고 날카롭고 섬세한 피드백으로 글쓰기에 활력을 더해준 도영,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서로를 위한 편지를 낭독하던 모습을 기억해요.

사랑하고 행복하자요~

열림터 활동가 상아



방탈출 카페

한견의 추억



사람들은 말하곤 한다.

서비스 업종은 손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힘들거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방탈출 카페에서 일할 때 술취한 손님도 좋았고 백신에 헤롱거리는
손님이 조금 날카롭게 대하셔도 나는 부상이라도 당하실까 걱정될 뿐
이었다.

나는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행복했다.

하지만 나의 첫 알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달쯤 일했던가, 내가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장이었다.

그만둘 생각 하나 없이 일하던 하루가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곤 몰
랐다.

202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손님이셨다.

40대 초반의 부부 손님이셨는데, 부부사이는 연인같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한 내게 편견이라는 것을 깨우칠 만큼 사이가 좋으셨다.

딸, 조카뻘인 알바생일 뿐인 내게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때 이 분들은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다.

평소보다 밝게 웃게 되었고 친절하게 응대해드렸다.

손님들은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며 플레이를 시작하셨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다.

사장님께 연락드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해결은 되지 않았고 손님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랬는데 너무 속상하고 죄송해서 어쩔줄 몰라하니 남자손님께서 “이건 알바생 잘못이 아니에요. 알바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장의 문제예요. 우리도 방탈출 좋아해서 여러 번 했는데 이럴 땐 환불처리라도 해주어야지. 사장이 참 그렇네요.”라고 말씀하시며 날 위로해주시길래 난 울컥했다.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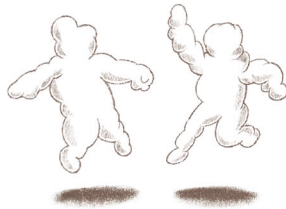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 그 말과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어떻게든 노력해주는 그 모습이 고맙다는 말.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어떻게 출근하지... 고민 중인데 손님들은 진지하게 몇 살인지 물어보셨고, 19살이라고 하니 “아직 어린데 왜 이런 곳에서 일해요.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곳 가서 일해요. 여긴 정말 아니에요.”라고 말씀해주셨고 난 안 그래도 막막한 찰나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용기를 얻고 그만두게 되었다.

시스템 오류로 환불까지 간 사건은 나의 월급에서 차감되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마지막 손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언젠가 또다시 그 손님들을 뵙게 된다면 진심을 다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힘들지도 몰랐을 기억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시기에 행복
을 전해주셨으니까.

나는 덕분에 원동력을 얻어 그 후로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보게 되
었다.





안녕, 어린 시절의 도영아. 아마 넌 지금쯤 중학교 2학년이겠지.

너는 지금 많이 힘들지?

학교에서도 날카로운 시선과 외면하는 눈빛에 압박받고 혼자 괴로워서 울잖아.

그렇다고 집이 편하지도 않을거야.

집에 가면 “저렇게 제멋대로인 애를 어떻게 더 이상 키워? 나는 재 못 키워.”라고 말하며 차라리 시설이나 지방에 보내자고 그러잖아.

“너같은 아이가 태어날거라고 알았더라면 낙태해버릴걸.”라는 얘길 듣고 상처받아선, 혼자 울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엄마아빠가 나 낳은 거잖아. 나도 이렇거면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라고 말했지?

너도 상처받고선 그 때 엄마의 상처받은 눈빛이 자꾸 아른거리리지?

그 뒤에 차마 생각하기도 싫은 말을 들어버려선, 상처는 더 깊어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의지를 잃은 넌 괴로워하다가 ‘아, 나의 최선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쥐어뜯으며 또다시 괴로워했을거야.

다가오는 사람들조차 날 역겹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제멋대로라는 것을 알면 떠날까봐 두려워 밀어내곤 했겠지.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못나서 상처줬을까봐 또 괴로워하곤 했을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면, 나는 20살의 어엿한 성인이 된 너야.

어떻게 네가 20살까지 살아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냐고?

믿기 힘들거야. 맞아. 나조차 내가 20살이 되었다는게 아직도 꿈같으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할거라고 다짐하곤 했으니까.

근데 나는 네게 꼭 말해주고 싶은게 있어.

비록 나조차 날 포기한 순간들이 지금은 후회가 되곤 하지만, 넌 잘했어. 모든걸 내려놓은 선택은 살기위한 널 위한 선택이 되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걸지도 모르니까 잘했어.

너가 그 순간 스스로는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순간은 사실 더 오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원동력을 키우는 순간이 되었고 넌 20살까지 살아내어서 지금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생들도 생겨서 가끔 무너져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려 노력중이야. 어찌면 이미 나의 행복을 찾았는지도 몰라.

여전히 난 이따금씩 사무치는 우울에 눈물흘리면서도 난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스스로를 절벽 끝으로 밀어내지도 않겠다고 다짐했거든.

스무살의 넌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내고 있어. 남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배울 점이 많은 바르게 성장한 어른이 되었어.

그러니까, 넌 이제 그 칼을 내려놓아도 괜찮아.

끝없이 반복되는 아픔에 20살의 너 또한 너무너무 아프지만 이젠 세상이 외면해도 스스로 감싸안아줄거야.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네 남자친구가 안아줄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기에 괜찮아.

너 스스로도 알잖아. 네 몸의 상처보다 네 마음은 더 곪아있다는걸. 난 지금은 온전히 나아졌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나는 언젠가 마음의 상처도 흉터가 되어 더 멋진 어른이 되길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

15살의 도영아. 널 혼자둬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나는 더 이상 널 외면하지 않을게.





나의 섭식장애



나는 섭식장애를 앓고 있었다. 지금조차 완치되었다고 말하진 못하겠다.

항상 나의 섭식장애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고민해보면 섭식장애의 처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 같다.

초등학교 2학년, 나는 급식에서 나오는 김치를 먹지 않았다.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수업 듣지 말고, 김치 남기지 말고 먹어.”

나는 ‘설마 학생에게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하겠어? 내가 버티면 그냥 버리고 오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선생님은 학교가 끝나도록 억지로 먹도록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에겐 가혹했다. 그 후 울면서 김치를 먹고 역해서 힘겨워했다.

나는 그게 그저 지난 이벤트와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나보다. 중학생 시절 난 남들 앞에서 무언갈 먹는 것을 꺼리곤 했다. 편식하는 내가 미웠다. 청소년이동쉼터 선생님들은 “도영아, 오늘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 너 정말 쓰러질까봐 걱정된다.”라고 하셨다. 사실 그럴만 했다. 남들 앞에서만 안 먹는게 아니고 스스로가 편식을 한다는 사실이 싫어 집에서도 무언가 찾아먹는 것이 라곤 굳것질뿐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은 물어보셨다. “섭식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검사라도 해볼래?”

싫었다. 나의 약점과 같은 것이었으니까. 검사를 했지만 섭식장애가 없는 것처럼 썼다.

그 후 17살이 된 나는 정신과에 처음 입원했고 남들 앞에서 몸무게를 잴는데 40키로 후반에서 50키로 초반정도라는 사실이 스트레스 받았다.

남들이 날 돼지처럼 생각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종일 굶었다.

며칠을 굶었고 난 47키로가 되었다. 의사쌤은 “도영아, 너 45키로 아래로 떨어지면 콧줄이라도 연결해서 영양 공급 해야해.”라고 말씀하셨다. 아플 것 같지만 살이 찌는 것보단 콧줄이 마음 편할 것 같았다. 난 44키로가 되었고 선생님은 콧줄을 연결하지 않으셨다.

그 후 나는 퇴원했다. 약 두 달 병원에서 지냈는데 6키로 정도가 빠졌다.

사람들은 걱정했다. 누가봐도 말라가는 몸이었으니까. 난 오히려 좋았다. 이제야 나의 몸을 찾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체중 감량을 목표로

굵으려하진 않았다.

그 해 5월 정도였다. 난 배우를 꿈꾸기 시작했고 간간히 드라마에 단역으로 촬영을 나가곤 했다. 근데 난 밖에선 충분히 마른 편이었는데, 촬영장에선 의상팀이 그랬다.

“넌 살은 언제 빠니?” 또다시 역겨운 느낌이 들었다.

그 후 음식을 씹으면 토사물을 씹는 기분이었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를 했다.

그 해 7월 나는 혼자 고시원에 살았는데, 더 먹지 않았다.

몸무게는 39키로가 되었다. 키는 160이 다 되어가는데 39키로라니 저체중이었다.

입안에선 쪼개지는 음식을 거부해서 먹을 수 있는건 마이쥬 등등 뿐이었다.

그거라도 애써 먹었고 나중엔 조금씩 음식을 먹으니 다시 43키로 정도가 되었다.

몸무게 앞자리가 4가 된 것이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다. 며칠 굶고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을 갔는데, 입원해야한다고 했다. 영양실조 증세가 보인다고 목에서 영양실조 사람들에게 보이는 곰팡이 균이 검출되었다고 했다.

그러고 3일 정도 입원해서 수액을 맞고 퇴원했다.

사실 영양실조는 조금 충격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조금이었다.

그 후 나는 다른 정신과에 입원했고 나와 맞지 않는 약을 먹었다.

난 원치 않았지만 맞지 않는 약이기에 80키로 정도까지 몸무게가 올랐다.

매주 일요일은 몸무게를 재는 날이었는데 점점 올라가는 숫자가 날 옥죄었다.

몇 번이나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다.

퇴원하고 집에 갔는데 맞는 옷은 하나도 없었다.

허탈했다. 난 여전히 s사이즈를 입을 것 같은데 바지는 종아리까지만 들어갔다.

죽음을 바랬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역겨웠다. 스스로 돼지새끼라고 욕했다.

살을 빼려 굶어보고 토하고 난리를 쳤는데, 약으로 붙어버린 살은 단단해져서 빠지지 않았다.

헬스장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왜 안되는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일 죽음을 바랬다.

그 당시 내 생각은 단 한가지였다.

이렇게 더러운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마르고 예쁘기 때문이었는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약을 먹고 죽으려 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다.

손목에 상처를 내곤 응급실에 실려가곤 했다.

그러던 나는 19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죽음을 원했고 또 병원에 갔다.

약은 바뀌었고 바뀐 약은 내게 맞아서 이제야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병원에선 운동도 틈틈이 해서 63키로까지 감량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듯이 매일 먹고 토하는 것에 지친 나

는 이제야 나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외모가 바뀌어도 떠나지 않아 준 친구들 덕분이기도 하다.

마른 몸과 얼굴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에너지만으로도 좋다는 말들이 고마웠다.

내게 다른 장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니까.

사실 여전히 완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야 날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즐거운 인생이니까



난 어쩌면 항상 내 인생은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모두의 관심 속에 태어났을지라도 아닐지라도, 난 그 속사정까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확실한건

난 지금까지 너무 아파와서 이젠 더 이상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나의 고통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다.

성폭행과 학대의 상처는 감히 나 스스로도 들여다보기 힘든 아픔이었다.

매일 스스로가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버텨왔다. 마치 나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이 아닌 몸의 아픔이라면 의사는 이렇게 말했을 것 이다. ‘환자분의 상태가 위독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건강한데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다. 매일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고 그 끝은 항상 ‘태어난 것이 잘못인가?’라는 무기력의 종착역에 도착하였으

니까.

건강해도 매일 스스로를 아프게 해서 병원에 갔다.

상처 하나가 나아지려하면 나는 또 다른 상처를 내곤 했다.

불합하고 나아지고 또 불합했다.

끊임없이 터지는 상처를 부여잡고 아파했다. 그걸 보던 의사쌤은 처음엔 ‘아플텐데 왜 또 그랬어?’라고 하시다가 나중엔 ‘또 왔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덤덤해지셨다.

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다가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다가 다시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렇게 아파한지 벌써 수년이 흘렀고 요즘의 난 그런 생각을 한다.

내 인생은 희극 아닐까? 비록 감당하기 힘든 상처가 있고 그렇기에 난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의 난 그 상처로 인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중이다.

모두의 무관심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오로지 내가 견디고 얻어낸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살고있다

구제불능인 고통 또한 나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진 못했다.

끝없이 떠오르던 상처는 내게 남들과 다른 길을 보여줬고 또 내가 일어나서 해낼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게 해줬다.

이젠 난 스스로를 갉아먹는 대신 발전하는 내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 일어났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건강해졌다. 어디부터 내가 행복한건지 찾아보면 그 처음은 나

의 고통이었다.

나의 고통은 날 더 단단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었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행복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으니까.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고통 속에서 발전하여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

괴로워해도, 아파해도 끝은 발전과 행복으로 스스로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인생.

그러니까, 난 그 누가 날 아프게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 또한 그렇게 서서히 아파하던 시간을 흘려보내고 행복해진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 또한 지금 너무 괴로워서 끝없는 아픔에 하루하루 흘려보내더라도 언젠간 스스로의 행복에 닿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쩌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나의
X에게



어디서부터 쓰는게 좋을까, 난 잘 모르겠다.

네 첫인상은 일을 열심히 하는 오빠였어. 당연히 호감이 가더라.

일을 그만둔 네게 연락이 온 건 만우절이었어.

밑도 끝도 없이 사귀자고 말하던 너.

난 당연히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너는 진심이었다.

난 받아주었고 우린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지.

너랑 난 정말 잘 지냈어. 때론 달달하고 때론 장난치며 연애를 해왔는데 점점 네가 욕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더라.

폭력에 민감한 나는 몇 번이나 말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아니야. 말도 행동도 무엇도 폭력이 될 수 있어.”

정색하고 화내고 어르고 달래고 애원했지만 넌 바뀌지 않더라.

난 네게 이별을 말했어.

한시간 뒤 넌 날 붙잡았고 내게 “한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바꿀게. 3주만 주면 안될까?” 간절한 너의 모습에 난 너를 믿어보기로 했어.

넌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난 널 믿고 있었어.

22년 5월 28일 난 울면서 말했어. “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와서, 너가 너무 좋은데 난... 감정에 서투른 사람이라서 그래서, 난 두려워.”

넌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지. “누구나 처음은 있어.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어젠 공부하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더라. 친한 삼촌이랑 근황을 주고 받다가 삼촌이 물어보시더라.

“남자친구는 잘 지내? 귀엽게 생겼던데.” 잘 지낸다고 답한 나.

그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다가 네게 온 연락.

“○○(나랑 친한 동생)이가 힘들어해서 혹시 만나서 카페라도 가서 얘기하면서 위로라도 해줘도 괜찮을까?”

난 당연히 괜찮다고 했지. 그 동생이 힘든 걸 원치 않았거든.

잠깐 그쪽으로 갈테니 인사라도 하자니까 둘은 말을 돌렸어.

내가 전화를 거니까 그제야 말하더라.

“자기야, 솔직히 말해도 괜찮을까? 우리 지금 영화보러 왔어.”

화가 차올랐어. 위로해준다고 만나더니 둘이 데이트를 한다고 느껴졌거든.

이해해보려 했어. 내가 오빠랑 만나며 힘들면 전화해서 하소연하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답을 주더라. “상처받은 건 너인데, 네가 왜 이해를 해?”

그래서 마음을 접기 시작했어. 커다란 풍선처럼 터질 듯 불안할 정도로 큰 내 마음의 바람을 빼기 시작했어.

그 후 23시가 넘은 시간에 친한 오빠랑 전화해서 힘들다는 내게 연락이 오더라.

“자기야 나 이제 ○○이랑 헤어지려고 근데 누구랑 전화 중이야?”

왜 물어보냐니까 한마디 하더라.

“자기 목소리 듣고 싶어서.”

뻘뻘하게 느껴졌고, 난 말했어. “스토리 가리면서까지 올렸던데, 목소리는 듣고 싶은가봐?”

당황하더라. 너와 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난 정말 이별을 말했어.

붙잡는 네게 신물이 났어.

나의 X야. 내 불안정하고 서툰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알 정도로 내가 널 좋아한게 지금은 후회된다. 비록 난 네가 아파하면 좋겠지만,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악물고 말할게.

“행복을 바라진 않을거야. 하지만 잘 살아라.”

우리의 엔딩 크레딧은 그렇게 내려갔다.



너무 사랑하는
내 동생



안녕. 내가 많이 아끼는 내 동생 아름.

아름아. 내가 너한테 글을 쓰리라곤 넌 상상치도 못했겠지?

하지만, 나는 한번쯤 네게 진솔하게 글을 써보고 싶었어.

사실 사촌동생한테도 쓰고 싶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 동생보다 네가 더 소중한거든.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 네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왔던 날.

나는 어색하기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 날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

그저 날 위한 케이크였고 나중에 네가 “난 그저 언니가 들어와서 여기사 만큼은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라고 말해줬던 그 때 나 사실 울컥했다?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얼굴도 나에게겐 너가 너무 어린 아이인데, 어쩌면 생각은 나보다 깊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껴졌어.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네가 말없이 내 슬리퍼 신고 나갔을 때도 또 내 앞에서 트림을 크게 할 때도 난 네가 너무너무 미웠는데, 정작 네가 입원하고 나서 나는 너무 슬펐어.

너는 처음보던 내게도 너무 따뜻한 온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는 네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때론 미안했어.

연락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

근데 용기내서 연락한 그 때 네가 받아줘서 난 고마웠어. 지금에서야 말할게.

어쩌면 단 한순간도 날 밀어내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최근에 네가 위험할 뻔했잖아.

나는 그 때 선생님들께 알린 내 선택 사실 너가 사과하기 전까지 너무 후회했어.

그게 최선이였을지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지 너무 후회되곤 했어.

네가 “언니,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라고 말한 그 순간 다행이란 생각만 들더라.

나는 그리고 네게 최대한 따뜻한 언니고 집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너에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미안하긴 해.

아름아. 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잖아.

난 네게 좋은 언니가 되어서 너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나도 아직 서투르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네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면을 숨겨주고 싶어.

네가 피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상처들로부터 널 숨겨주고 싶고 지켜

주고 싶기도 해.

너무 많이 힘들어한 네가 이젠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기대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줬으면 해.

어쩌면 내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들을 조금씩 아물어가고 덜 아파지길 바라고 있어.

표현하진 않지만 나는 널 사실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거든.

언니가 어쩌면 너무 딱딱한 사람이어서 네가 소중한다고 말해주지도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도 못한 것 같아. 미안해. 15년 스스로 너무 열심히 버티고 살아내줘서 네게 너무 고마워.

네게 힘이 되어주기에 너무 아프고 여린 언니라서 미안해.

사랑해. 소중한 내 동생.

오늘도 내일도 걱정없는 행복한 꿈을 꾸길 바랄게.

도영 언니가.



아름

폭풍이 지나간 인생을 살고 있는 꽃다운 나이 15살의 아름이에요.
폭풍이 지나간 곳에 꽃씨를 뿌리고 잘 가꾸는 중이지만 어려운 일이라
항상 꽃 피우는 것에 실패를 해도 꾀꿉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겐 공감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언니
언젠가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미혼모를 꼭 나쁜 시선으로 보지는 말아주세요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언니



언니 안녕?

내가 언니에게 글이나 편지를 써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이 글을 쓰는 지금조차도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언니가 처음 입소한다는 그날, 입소한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고 설레서 뛰어서 베스킨라빈스를 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골랐지.

언니가 무슨 맛을 좋아할지 몰라서 가장 귀여운 걸로 다양한 맛이 있는 걸 고르려고 무척 애썼어.

그 케이크를 고르는데 만 20분이나 걸렸어. 근데 그 20분 별거 아니더라. 그 20분 동안 나는 너무 긴장되고 그 순간에도 무척 설레서 시간이 빨리 갔거든.

언니를 처음 마주한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모든 게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

나갔거든.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밝게 웃으면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니깐 너무 반가웠어.

이제야 말하는 건데, 언니가 케이크를 사온 나를 두고 □□이랑 더 가까이 지내길래 살짝 서운했어...

솔직히 며칠 뒤에 □□이가 퇴소를 한다길래 언니랑 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 하면서 좀 기뻐했다? 웃기지? 난 좀 민망하네..

언니 그때 기억나? 내가 트림해서 헛구역질 하면서 먹던 거 뺏어 내던 날. 난 그게 아직도 생생해.

내 트림이 비장의 무기 같았거든. 어린애처럼 트림으로 웃기고 울리고 다 했었지. 근데 요즘엔 언니가 싫어하는 걸 알아서 안하려고 자제 중이야.

언니랑 친해지고 언니랑 더 가까워졌을 때 난 언니의 몸에 있던 많은 상처들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게 느껴져서 보기만 하는 데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런 언니 옆에서 나는 그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나 스스로가 한심했어.

내가 정신병원 입원하는 그 날 마지막으로 언니를 못 보고 간 게 아직도 아쉬워.

병원에서 언니랑 같은 쉼터에서 지냈었다는 언니를 만나고 너무 반가웠던 거 있지?

마지막 연락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2월이더라. 속으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줬으면서...’ 하면서 서운했었어. 물론 나도 먼저 연락을

안 했지만 말이야. 솔직히 연락하기가 무서웠어.

언니가 차갑게 답 해줄까봐 두려웠거든.

근데 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 그날 진짜 설레었어. 날 기다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 쑥스럽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먼저 연락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먼저 연락 못해줘서 많이 미안했어.

퇴원하고 왔는데 언니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들고 와서는 “아름아~~” 했을 때 울컥하더라.

언니가 내가 케이크 사와서 맛있게 쫓을 때를 기억해서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

이번에 내가 아는 선배를 만나러 간다고 많이 위태롭고 위험했던 날 선생님 불러 줬던 거 처음엔 언니가 너무 밉고 싫었어. 그래서 언니를 밉고 욕하며 집으로 들어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내 뒷조사를 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려 했다는 걸 알았어.

그때 정말 심장이 내려앉더라. 내가 괜히 오해해서 언니에게 상처를 준 거 같았거든.

그래서 언니가 있는 카페로 가 울먹거리며 “언니,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

언니가 받아주지 않을까봐. 근데 아니더라.

두 팔을 벌리고 안기라는 듯이 손짓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오늘 언니가 손에 뭍 사들고 왔길래 뭘지 보니까 단 것 들이랑 인절미더라. 내가 “언니 단 거 싫어하잖아”라고 하니까 “그거 너 꺼야” 하는 말에 감동했다? 내가 또 딱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가 밥을 못 먹었다길래 “밥 먹을 시간 안 줘?” 라는 말을 하는 내게 “돈 아까워서 굶고, 너 먹을 것들 사왔어”라고 무덤덤하게 말하는 거에 울컥해서 집에 있는 밥들이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줬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더라.

바쁘게 일하고 와서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 내가 돈이라도 벌 수 있었으면 더 좋은 밥을 먹게 해줬을 텐데 말이야.

언니는 언니가 자신 스스로를 미워했었다 했잖아. 나는 그걸 듣고 말해주고 싶었어. “힘든 10대를 버티고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좋은 모습만 찾아가며 살아줘. 칼을 들고 싶은 순간이 오면 칼 말고 내 손을 잡아줘”라고. 근데 너무 오지랴 일 까봐 말을 못했어.

난 처음 했던 말 그대로 언니가 여기서 만큼은 편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때론 내가 밉고 싫고, 짜증나는 순간이 있겠지만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항상 언니 편이고 서운한 거 다 털어놔도 곁에 계속 있어 줄 거라는 건 알아줘.

언니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랑 행복한 추억 많이 쌓자.

항상 사랑하고 못난 동생이어서 미안해.

아름이가.



언젠가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나에게 있어 엄마란 기억이 없기에 더욱 이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내 자식에겐 한 치의 부끄럼 없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나는 항상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잘 못 태어난 너를 데려다 키운 내 잘못이지”라고 말이다. 내 자식에겐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다. 예쁨만 주며 먹고 싶다는 거 다 먹게 해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며 키우고 싶다. 나와는 절대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진 않다. 내가 겪어본 인생이기에 그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진 않다. 내 자식은 보석보다도 귀하게 키우는 게 내 꿈이자 전부이다. 어찌면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살게 해주려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겪어온 고통, 인생, 감정들을 겪게 하면 내 자식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절대 그렇게 두고 싶지 않다. 아빠한테 항상 맞던 그 육체적 고통과 언제 아빠가 와서 때릴지 모르는 불안함의 정신적 고통. 그때부터 틀어진 내 인생들,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만든 되지 않았으면 좋

겠다. 나는 열세 살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어두운 길로 갔다. 술, 담배, 돈놀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길로 많이 갔다. 내 자식에겐 이것만큼은 절대 가게 두고 싶지 않다. 좋은 엄마에겐 좋은 아빠가 있다. 내 자식에겐 부모가 둘 다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 들어 할 모습이 떠오르니 나는 좋은 남편을 가질 것이다. 내 자식에게 ‘아빠 없는 아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음 해서 말이다. 이것도 내가 겪어본 일이기에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학교에서 항상 애들이 “너는 왜 부모님이 참관 수업 때 안 와?”라고 묻는 말에 항상 바쁘셔서 못 오는 거라며 둘러대기 일쑤였다. 몇몇 눈치챈 아이들은 내게 항상 “부모님 없는 고아네?”라고 놀렸다. 그 시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엄마가 되어 자식의 미래를 잘 서포터 하는 모자람 없는 엄마가 되기까지 나는 노력할 것이다. 이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사람들의 시선에 주눅 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타인의 시선과 말에 상처받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미혼모를
꼭 나쁜 시선으로
보지는 말아주세요



미혼모라고 하면 좋은 시선이 안 가지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찢든 미혼모라는 프레임 안에 속해 있는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다들 아시죠? ‘실수해서 생긴 애 키우는 엄마, 문제 있는 여자’ 등등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전 미혼모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를 원망했어요. 실수해서 만든 애면 지울 것이지 왜 포기를 안 하고 보육원에 보내 날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했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외려 날 포기하지 않고 낳아줘서 감사해요. 주변에선 다들 저에게 그래요. “엄마, 찾을 생각 없어?”라고요. 전 거기에 절 낳아주신 엄마를 찾고는 싶지만 엄마에게 폐가 될까 그러질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솔직히 지금 엄마가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덕분에 전 항상 감정이란 걸 느끼니까요. 슬픈 것도, 행복한 것도,

화나는 것도 말이에요.

또,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해요. 예를 들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준 것도 그렇고 내가 열립터를 와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언니를 만나 좋은 인연을 시작했다는 걸로 면 충분해요. 뭐 미혼모와 미혼모의 삶과 미혼모의 자식에 삶이 분명 힘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힘듦을 겪어야 한 발짝 더 좋은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혼모의 자식으로서 모든 미혼모와 미혼모 자식 분들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불행하다는 순간이 올 때도 있겠지만 그걸 버텨서 더 좋은 세상으로 다가가길 빌게요. 응원해요. 라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거든요



전 미혼모 엄마에게 버려져 3살 때 입양을 당하고 초 1때 양부모님이 갈라서고 한 번 더 버려졌어요.

근데도 전 괜찮았어요.

전 제가 좋고 그룹홈에서도 절 받아줘 잘 키워주셨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학부모 참관 수업 때 왜 부모님이 오지 않냐고 물어도 괜찮았어요. 혼자 책상에 앉아서 친구들이 부모님과 인사하는 것만 봐도 만족스러웠거든요. 몇 년을 반복하니 일상이 되어버려서 아무렇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네요.

초등학교 3학년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넌 가정이 힘들지만 똑똑해서 나중에 큰일을 할거야.”라고 말이에요.

근데 전 제 가정이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 저는 항상 웃어 넘겼죠.

초등학교 때 전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눈에 사시가 있거든요.

외꾸눈, 장애인, 삐꾸 이런 말을 들었어도 전 괜찮았어요.

어른들이 항상 크면서 이뻐진다고 하셔서 그게 진짜인줄 알고 믿었거든요.

4학년 때 한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제게 그러셨죠, “한쪽 눈이 많이 안 예쁘네.” 그 말에 저는 “제가 보기엔 귀엽고 이쁜데요.”, “봐봐요, 눈이 조그만 해서 귀엽잖아요.” 라고요.

어떤 상담사님은 저에게 “불쌍한 아이네, 걸으로 봤을 땐 밝아보였는데.”라며 저를 동정하셨어요.

전 그 말에 “제가 불쌍해요?”라고 말했죠.

선생님은 그에 “너가 겪은 일들을 선생님이 안 겪어 봐서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땐 그런데, 너는 안 그래?”라며 말을 이으셨죠.

전 그 말에 수긍하지 않고 “전 지금이 행복해요.”라고 했어요.

5학년 때 양아버지가 찾아와 저를 데려가고 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한 달에 500만원은 그냥 쓰는 게 일상이 되었고 남들처럼 집에 자기 방이 생겼고, 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전 늘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었죠.

골프채로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맞고 두피에 염증이 날 정도로 머리채를 셀 수 없이 잡히고, 얼마나 맞은 지도 모를 정도로 발로 채이고 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방에 가서 혼자 울 때쯤이면 아버지가 안으면서 미안하다 하였고,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전 그래도 제가 불쌍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하며 제 마음을 다독였거든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매 순간이 스쳐 지나가는데 전 제 자신을 한
번도 불쌍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저 버티고 생존해온 저 자신이 대견하고 기특할 뿐이었죠.

남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저만 절 아끼고 절 아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면 되거든요.





열린 수업을 마치며...
글쓰기는 셀프구원



도영과 유자로 시작해서 도영과 아람으로 글쓰기 수업 10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명의 학인과 하는 글쓰기 수업은 처음이었는데, 우려와 달리 오붓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영과 아람 덕분에입니다.

우선 도영과 아람은 빠짐없이 수업에 참여하는 성실한 학인이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 글쓰기에서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모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쓸 것이 생기고, 그걸 토대로 글을 풀어내며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신기하죠? 쓸 것이 있어서 앉는 게 아니라 앉아있다보면 쓸 것이 생기는 것이요. 쓰기의 마법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글이 모이고 문집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도영과 아름은, 아름과 도영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확인이었습니다.

도영은 말했습니다.

“남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도 평생 힘들 거라고 말했죠. 부모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아픔과 상처를 견디는 거지만 살아내고 있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상처를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 아픔을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나를 숨기지 않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아름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써내려간 기분이에요. 제 인생을 되짚어볼 수 있었어요. 오래 앉아있지 못했는데 글쓰기가 재밌어서 쓰게 됐어요. 쓸수록 느꼈죠. 이 새끼 쓸데없이 매력있네? (웃음) 글쓰기의 매력이에요? 글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황을 전달하는 게 좋아요.”

두고두고 새기고 싶어서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요.

사람은 누구나 결핍과 상처의 존재죠.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그 상처와 결핍이 힘과 자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글을 썼는데, 도영과 아름도 글쓰기의 힘을 알게 된 거 같아 기쁩니다.

특히 열다섯 살 아름이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다니요! 저는 서른 넘어서 빠졌는데 말이죠. 자기소개에 썼듯이 “폭풍이 지나간 인생”을 산

아름에게는 보석 같은 글감이 많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
니다. 연기라는 재능이 있어 자기표현을 잘하는 도영도 글쓰기에 좋은
조건과 자질을 갖췄으니 마음껏 쓰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림터 글쓰기 수업에 같이 참여해 힘이 되어준 추상아
샘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나의 글쓰기 벗들.

우리, 쓰는 존재로 어디선가 또 만나요.

은유



우리들의 해방일지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발행일 2022년 6월 16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발행인 조은희

편집 류수민

저자 도영, 아름

글을 선물해준 사람 추상아, 은유

전화 02-338-3562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메일 yeolim@sisters.or.kr

디자인 아리에뜨 ariette.co.kr

표지·일러스트 김도이 doiverse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문집

우리들의 해방일지

